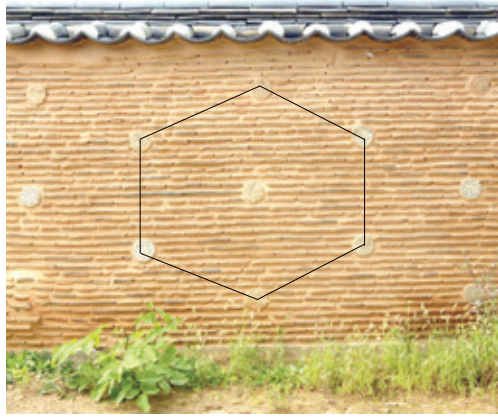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15

원장(垣牆)의 비밀

강원도 양양(襄陽)에는 바다와 산으로 어우러진 동양 최고(最古)의 관음도량 낙산사가 있으며 원통보전(圓通寶殿)을 에워싸고 있는 조선 전기(前期)의 담장이 있다. 이 담장은 높이 3.7m, 길이 220m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4호이다. 담장 안쪽의 담벽은 기와로 쌓고, 바깥쪽은 막돌로 쌓았다.



낙산사 원통보전(圓通寶殿)을 에워싸고 있는 원장(垣牆). 동글게 조각된 화강암이 표시된 육각형 모양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담장 속에 박혀있다.

법당을 향한 담장 안쪽에는 하단에 2단의 장대석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다시 1단의 장대석 받침돌을 놓았다. 담벽은 강회진흙과 평와(平瓦)를 차례로 쌓아 담벽 전면에 기와로 가로 세로의 줄을 맞추고,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화강석을 배치한 세계 유일한 담장이다.

조선 세조(재위 1455~1468)가 낙산사를 고쳐 지을 때, 처음 이 담장을 지었고 대부분 터만 남아 있었던 것을 2005년 4월에 화재로 원통보전이 불탄 후 새로 보수했다.

보물 제1362호로 지정돼 있는 건칠관세음보살이 원통보전 안에서 좌정한 채로 바깥을 내다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담장이다.

몇 년 간 낙산사 불사에 전념할 때 매일 원장을 지나 원통보전에 갈 때마다 항상 금급했던 것이었다.

첫째는 왜 화강암을 동글게 조각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담장 속에 박아 넣었을까? 둘째는 원형의 화강암 아래 위로는 왜 평와를 넣어 선을 그어놓았을까? 셋째는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이다.

원장(垣牆)이라는 명칭을 한 이 담장을 한문으로 써보면, 담장 원(垣)자를 쓴다. 이 담장 원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흙(土)으로 아래 위에 평와를 넣고, 그 사이에 날 일(日), 즉 태양이 들어간다. 이 모습을 보면, 원장의 조성원리가 단박에 드러난다. 수평선과 파도, 하늘을 상징하는 평와를 아래 위로 두르고, 양양(일출, 또는 해오름)을 상징하는 태양을 넣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의 화강암을 아래 위, 양옆으로 맞추어 넣은 것일까?

이는 일출과 일몰, 또 정오에 뜨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긴 담장을 따라 연이어 박아 넣은 이유는 흐르는 시간과 세월을 보인다고 봐도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그런 이후에도 원장 앞에 서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원형석의 구성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은 정확한 육각형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육각형의 모습은 평방과 장방부리의 매화점과 그 모양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동시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최근의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상징

수평선·파도·하늘 상징하는 평와에

해오름 상징하는 태양을 넣어

원통보전 잘 보호하려는 이상 표현

은 정확히 육각형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육각형은 다시 말해, 금강석(金剛石)의 상징과 형태인 것이다. 금강석의 결정구조 하나의 단위에는 정확히 정육각형이 내재한다.

담장을 지은 조선의 장인들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원통보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상(理想)을 품었음에 틀림없다.

깨달음의 목표와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매화점의 형상이자(금강석)의 상징인 금강석의 형태를 지닌 원장은 실로 아름답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강원도는 눈의 고장이라는 점이다. 눈의 고장이기에 낙산사는 겨울마다 거의 1m가 넘는 눈에 파묻히는 경우가 많다.

눈은 알려진 바와 같이 그 결정 구조가 육각형이다. 냉각 수증기가 변해서 눈 결정이 생성되는데,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되건 최초로 나타나는 모습은 육각형 구조이다.

육각형 구조는 물 분자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 수소와 산소와 수소결합을 하고 그로 인해 대기압에서 물분자 6개가 서로 고리를 형성해 6각형의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보면 낙산사 원장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재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달빛

달빛 따라 길을 나선다.  
길 위에서 바람도 만나고 꽃향기도 만나고.  
산속이야기를 전해주는 개울물도 만나고

개구리들의 무진법문도 듣는다  
나는 길 위에서 그들에게 길을 묻는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19 조선 편양언기 선사의 '연화경을 외우는 스님에게 보이다[示誦蓮經]'

베풀기를 기다리지 말라

金剛天德寺 (금강천덕사)  
法侶誦蓮華 (법려송련화)  
白雪滿天下 (백설재천하)  
飛空作四花 (비공작사화)  
六震焉無撼 (육진언무감)  
山河病眼多 (산하병안다)  
毫光開佛眼 (호광개불안)  
莫待設三車 (막대설삼차)

금강산 천덕사에 연화경을 송하는 스님 하늘에 가득한 흰 눈 허공을 날아 네 가지 꽃 짓네. 여섯 가지로 진동함에 어찌 감동이 없으랴. 산하에 병든 눈이 많네. 호광이 부처님 지혜의 눈을 여나니 세 종류의 수레 베풀기를 기다리지 말라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 스님이 금강산 천덕사에서 〈묘법연화경〉을 송하는 스님을 보고 지어 보인 시이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할 때 상사로 온 짐조로 하늘에서 네 가지 희고 붉은 연꽃이 비 내렸다. 이 스님이 〈법화경〉을 독송할 때 하늘 가득

히 눈이 내리고 있었나 보다. 스님은 하얗게 내리는 눈을 상사로온 네 가지 연꽃에 비유해 〈법화경〉 독송하는 스님을 찬탄했다. 이어 우리 중생의 마음에 있는 탐·진·치·견·만·의 등 무명을 6가지로 흔들어 뒤쳐버리고 청정한 본래 면목을 보여주어 감

동시킨 〈법화경〉 설한 공덕을 읊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계는 근본번뇌로 물든 병든 눈을 가진 자가 많다. 그 이유가 마지막 구에서 찾아진다.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나오는 빛은 부처님의 지혜를 열기에 충분하며 그 자체가 곧 불성인 것이다. 구지 양·사슴·소가 끄는 수레로 비유되는 성문·연각·보살의 삼승을 시설해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 하는 〈법화경〉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을 여의고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경은 곧 나요, 불성인 것이다. 경에서 나를 보아야 하고 나에게서 불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에게 읽히고 있는, 경을 경으로만 대하지 말라. 스님의 간곡한 당부가 저 독경 소리에 묵연히 스며든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 더워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재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모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습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퍼줍니다.
3. 동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 하십시오.

◇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 무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를 알려주십시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6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1,6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가이드, 기사 팀 \$50

※ 단체문의

■ 지장도량 구좌산 | 황산 5일 990,000원  
8월 16, 19, 24일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9월 16일 출발확정

9월 문의

7월, 8월 출발 가능

-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599,000원 부터 -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649,000원 부터 -
-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990,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